

보도일시	즉시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배포일시	2023.3.10.(금)	홍보 담당	정책기획실(02-559-3820)
사업부서	과기인재양성팀	팀장	홍옥수(3930, oksu@kofac.re.kr)
		담당자	변재규(3897, byonjg@kofac.re.kr) 박은혜(3836, grace.park@kofac.re.kr)

과학영재 발굴·육성을 위한

「과학영재 창의연구(R&E)」, 500개 연구과제 공모!!

- '23년 글로벌 협력 R&E 신설, 지식재산 등록형 IP-R&E 확대 등 연구유형 다각화 및 도전적 연구 지원 고도화 -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이종호, 이하 '과기정통부')와 한국과학창의재단(이사장 조율래, 이하 '창의재단')은 전국 과학고·과학(예술)영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적 탐구역량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"2023년 과학영재 창의연구(R&E) 연구과제 공모(이하 'R&E 공모')"를 3월 10일(금)부터 3월 24일(금)까지 15일 간 실시한다.
- 금년도 'R&E 공모'는 총 500개 연구과제를 지원하며, 약 1,700여명의 과학영재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. 연구 분야는 총 8개로 수학·물리·화학·생명과학·지구과학·정보·공학·융합 중 선택이 가능하며, 연구유형은 총 5개로 예년에 비해 다양하게 지원한다.

【'23년도 과학영재 창의연구(R&E) 5개 연구유형】

- ① 자율주제 R&E :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진행하는 자기 주도적 연구 활동
- ② 지정주제 R&E : 대학연구소·출연(연) 전문가 추천주제를 선택 진행하는 전문가 연계형 연구 활동
- ③ 다년도 R&E : 선행연구 진행 후, 후속연구까지 진행하는 수준별 단계별 맞춤형 심화연구 활동
- ④ IP R&E : 과기부 특허청下 창의재단·발명진흥회 연계협력으로 진행되는 지식재산 등록형 연구 활동
- ⑤ 글로벌 협력 R&E : 한국·미국 영재학생들이 협력하여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탐구하는 국제협력형 연구활동

-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“글로벌협력 문제해결형 R&E” 과제는 특히 주목할 변화이다. 한국과 미국, 양국의 과학 영재학생들이 함께 지역 사회와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 연구문제를 도출하고 탐구하는 협력 연구가 시범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이다.
- 창의재단은 미국 코네티컷주 산하 교육기관 ACES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과 미국에서 약 20개 팀을 선발, 시범 지원하며 점차 글로벌 협력 연구의 국가 및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.
- 전년도 성과로는 지식재산 등록형 ‘IP-R&E’ 연구과제(10개) 결과물이 모두 특허출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. 과학영재들이 지식재산 역량을 확대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. 올해는 지원규모를 10개 과제에서 15개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.
- 과기정통부-특허청 국장급 정책협의회와 창의재단-발명진흥회 MOU를 통해 지난해 첫 시범지원 및 우수한 성과를 거두게 되어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는 전략이다.
- 금년도 ‘R&E 공모’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2월28일 발표했던 제4차 「과학영재 발굴·육성 전략」 중 ‘혁신·도전성 강화’에 초점을 두어 ‘R&E 혁신·도전상(장관상)’을 신설하고, 시상 위계와 규모를 점진적으로 강화·확대할 예정이다.

【 도전적 연구 지원 고도화 방안 】

- 장관상으로 위계 강화, 점진적 시상규모 확대를 통해, 혁신·도전적 과학영재 양성 환경 조성에 일조

R&E 시상 비고	`22년		`25년(향후 모습(案))	
장관상	우수상	100%	재분배	50%
	혁신·도전상	0%		50%
창의재단 이사장상	혁신·도전상 (신설)			자연스런 흡수

- 이를 위해 'R&E 공모' 시 연구효율성 제고를 위한 「국가연구개발 혁신법」 제정취지와 「과학기술진흥기금」 운영지침을 적극 반영한 '과학영재 창의연구(R&E) 업무매뉴얼'도 함께 배포한다.

【 R&E 지원제도 개선 】

- 기존 "과제중심 행정지원"에서 "과정중심 연구관리"로 R&E 연구지원 방식 전환



- 올해로 21년째를 맞이한 과학영재 창의연구(R&E)는 기존의 우수한 연구성과는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, 새로운 연구과제 유형을 꾸준히 발굴하며 발전했다. 앞으로는 도전과 혁신을 강조하며, 틀을 깨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는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방식을 고도화 할 예정이다.
- 조율래 창의재단 이사장은 “우리나라 과학영재들이 미래사회 글로벌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혁신·도전 중심의 다양한 창의적 연구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고 강조하며, “훌륭한 과학자, 동료들과 함께 연구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과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R&E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